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1호 【루게 제23123호】 주제99 (2010)년 6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 지휘관강습소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 지휘관강습소를 시찰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의 총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강습소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천만군민의 결사투위의 맹세가 담겨진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자나깨나 마음속에 그려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부대에 모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소용돌이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강습소에 도착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동지, 현철해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강습소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강습소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 로선을 높이 받들고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 부대의 지휘성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종합강설, 도서실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교육교양상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습소에서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지휘성원들의 당성, 혁명성, 로동계급성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으셨는데 그중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리론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강습소일군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어 침실, 식당, 부식물창고 등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강습생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울창한 수림속에 공

원처럼 펼쳐진 일출한 구해를 바라보시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병영의 외부와 내부를 훌륭히 꾸리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습소에서 후방시설들을 잘 갖추어놓았을뿐 아니라 부업지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강습생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승고한 동지적의리의 힘으로 백승을 떨쳐온 항일유격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자랑스러운 미풍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강습소는

부대안의 지휘성원들에게 혁명군대 지휘성원들이 지녀야 할 기본정표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강습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습기간은 지휘성원들의 사상정신적용모를 더 잘 갖추어 주는 정치사상수양의 나날이라고 하시면서 강습소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그들이 앞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골간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더욱 깊이 체득시켜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습소에서는 지휘

성원들의 당성단련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세우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오직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억 세계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습소에서는 지휘성원들속에서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교수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은 높은 군사실무적 자질과 함께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여야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강습기간이 사상단련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습소의 지휘성원들과 직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 임무에 열의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 활영을 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몸소 부대에 찾아오셔서 나아가길 휘황히 밝혀주시고 사업과 생활을 천여비의 사랑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게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안북도의 여러 부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평안북도의 여러 부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태중수동지, 제1부 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재일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현지에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중권 동지,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리철만동지, 평안북도지구계획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 통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남동지를 비롯한 도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평안북도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현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먼

저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라번지고있는 12월5일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광산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시된 사적자료들을 보시며 광산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광산이 현대적인 광물생산기지로 전변되고 광부들이 부강조국건설의 미더운 척후병, 개척자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어 가성소다중간 시험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광산기술개진정형과 광물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8년전 5월 광산에 찾아오시며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광산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광물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

을 가져왔다.

특히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화학공업의 기초원료인 가성소다를 팡팡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지개벽된 광산마을과 현대적인 설비들로 갖추어진 생산공정을 보시고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고있는 광물들과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광산에서 리용가치가 큰 광물들을 대량생산하고있을뿐 아니라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기술혁명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광산에서와 같이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는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12월5일청년광산은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이 광산은 발전전망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현대화, 과학화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굴지의 광물생산기지로 꾸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광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채굴조건이 좋은 광산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광구들을 더 많이 전개하고 심부채굴준비를 다그치는 데 령도를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광부들은 지하에서

일하는것만큼 그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12월5일청년광산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대의 거센찬 숨결에 발을 맞추어 광물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광산의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뻐 활영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북중기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0월의 대추전장에 안고 갈 최첨단들과의 로력적전물을 마련한 크나큰 긍지를 안고 어버이장군님을 맞이한 북중로동계급의 얼굴마다에는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로 로동계급을 키워주시고 비약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끓어쳐흐르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최신식기계제품들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능이 좋은 새로운 기계들을 훌륭히 만들어낸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훌륭한 기계들을 창안제작한것은 과학기술집단의 투쟁으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사회주의위력과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김일성민족의 혁명적기질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용 대상설비들을 보시고 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높은 리상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한 기세로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투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온 북중의 로동계급은 각종 기관, 압축기, 팽동기를 비롯한 기계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인민경

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선박공업발전과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한 참으로 자랑스러운 영웅적로동계급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적극 발전시키자면 현대적인 고기배와 짐배를 무어내는데 필요한 성능높은 기관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북중로동계급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생산의 모든 공정들을 최신설비들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며 련관부문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만시련을 헤쳐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통하여 백배, 천배로 역세여졌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을 통하여 자기의 전통과 실력을 뽐냈기 파시한 북중의 로동계급이 앞으로 당의 경제정책판철에서 돌격대의 역

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북중전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전국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우리 식의 전국을 만들어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우리의 흑연으로 전국생산에 성공하는 과학기술적진보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우리의 청년과학자들에게 흑연공업의 패권을 렬데 대한 높은 리상을 안겨주시고 연구집단을 무어주신데 기초하여 걸음걸음 품들여 개척해오신 흑연공업발전의 길을 따라 이룩된 천연흑연전극의 성공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전국생산의 종자를 철저히 흑연에 두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흑연연구소 과학자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새로 개발된 흑연재료를 가

지고 전극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공정을 그존하게 꾸려놓음으로써 우리 식 전극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흑연전극생산의 돌파구를 열고야말 결사의 각오를 안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기어이 성공한 승리의 보고를 들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초고전력전기로들에서 리용하게 될 천연흑연전극들이 생산되어나오는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시면서 전극생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우리의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전체 공민들이 자기의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의 모든 초소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는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내 나라의 자원을 아끼고 사랑할뿐만아니라 훌륭히 가공하여 강성대국의 귀중한 재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흑연공업의 발전전망은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흑연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의 흑연공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북중전국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로 꾸린 천연흑연전극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쌀로 당의 은덕에 보답할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농장원들은 모내기물 5월말까지 끝낸 기세로 논밭비배관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3 면으로 계속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 번 에서 계속

김정일 동지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장산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장산리는 전쟁의 불길에 세차게 타오르던 1952년 6월 20일 마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시면서 당원들을 전식량증산에 고무해주시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는 녀성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전선에 나간 남편들과 오빠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력사의 고장이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옛모습 그대로 서 있는 사적건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고 있을수 없는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장산마을이 사회주의무용도원으로 전변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영원히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높이고 농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농장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농장에서 현대적으로 건설한 우렁이서식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렁이에 의한 벼농사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여러 농장들의 경험은 우렁이에 의한 논벼비배판리가 많은 로력과 농약, 비료를 절약하면서도 논벼소출을 높일수 있는 우월한 방법이라는것이 실증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농장들에서 이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올해 영농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모살이를 끝낸 벼모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논판들과 이랑이 보이지 않게 우거진 감자산을 보시고 훌륭한 작황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농장의 어느 포전을 보나 하나같이 꽃밭처럼 알뜰하게 가꾸어졌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된 자각을 안고 알곡생산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농장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한 문화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농장마을과 오목백과가 푸르러 설레이고 기계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풍요한 협동농을 바라보니 마치 한복의 그림을 보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의 자랑스러운 본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제도는 대중의 애국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고 단합된 힘으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리형태라는것을 우리 농민들은 실천을 통하여 절감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훌륭한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농사는 전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강렬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급격히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산협동농장에서 최근년간 선진농장들에 못지 않는 높은 알곡소출을 낼수 있는 기본요인은

중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근본방도는 정량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력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빠른 길은 당의 두별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 성과에 토대하여 지대별특성에 맞는 두별농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농민들을 힘의 일에서 해방하고 농업의 집약화, 과학화 수준이 높아가는데 따르는 긴장한 로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는 한편 능률적인 기계수단들을 많이 생산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농장에서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농장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농업전선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전국, 전민이 농사에 계속 총력량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을 만풍년으로 빛나게 장식하자고 다시금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림으로써 경제건설은 물론 국토관리사업

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전변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조와 위훈으로 충만된 평북땅에서 시각을 다투며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성과들은 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거세찬 숨결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진군속도는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일편단심 당을 따라 역세계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백철불굴의 의지와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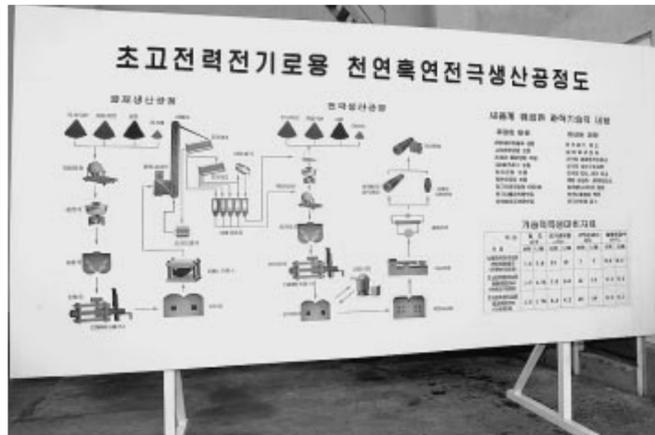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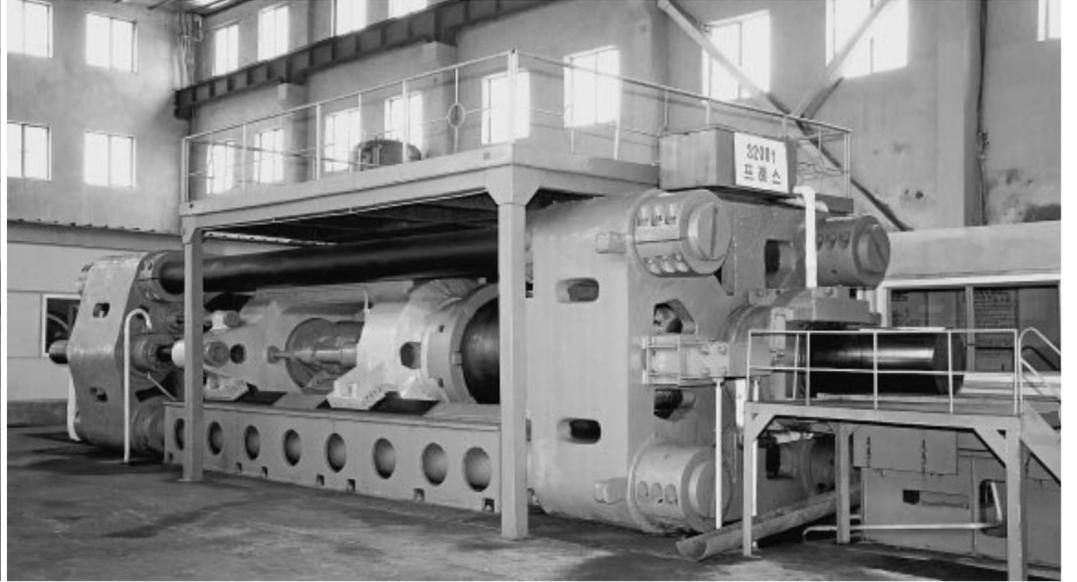
평안북도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다시 도에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에 남김없이 들어설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평 안 북 도 의 여 러 부 문 사 업 을 현 지 에 서 지 도 하 시 였 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평 안 북 도 의 여 러 부 문 사 업 을 현 지 에 서 지 도 하 시 였 다



